

인천 요양쉼터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를 위한 공간, 인천에도 열어



인천지역에도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쉼터가 문을 열었다. 본회에서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쉼터를 마련하여 감염인들의 휴식처를 운영해온데 이어 인천에도 쉼터를 개설하여 에이즈 감염인이 필요할 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본 협회는 천주교의 한 수사회와 쉼터를 공동운영키로 하고 쉼터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최근 급격한 에이즈 증가가 문제되는 중국과 가장 인접한 국제항구도시로서 에이즈의 확산방지가 절실히 요청되는 인천지역이라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

쉼터는 인천 지역의 에이즈 관리와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소외받는 감염인과 환자에게 숙식과 편안한 요

양장소를 제공하며 필요한 때 바로 효과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으로 감염인의 안정을 돕고 자활능력을 고양코자 한다.

쉼터의 서비스

- ▶ 에이즈 전문의사 및 지정 전문진료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하여 정기 방문의로 지도와 상담
- ▶ 일손보조와 가정간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용
- ▶ 노출방지를 위한 비공개 운영

이용대상

- ▶ 각 보건소에 의뢰한 감염인, 환자
- ▶ 쉼터에 머물기를 원하는 감염인, 환자
- ▶ 쉼터에 머물며 일손을 보조하거나 환자를 간병하기를 원하는 건강한 감염인

